

✓ 제목

윤슬

✓ 형식

단편영화

✓ 주제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하다.

✓ 로그라인

윤슬과 명자, 둘뿐인 집에 낯선 물체를 든 이가 찾아온다.

✓ 런닝타임

15분 이내

✓ 기획의도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상처주고 반대로 상처 받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일수록 크게 남습니다. 그렇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랑을 망설이게 됩니다. 다행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게 되는지 이야기 하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 캐릭터 소개

윤슬(女)

9살. 보육원 생활을 하다 7살 때부터 외할머니와 산다. 흥이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다. 어려서부터 단체생활을 하며 눈치 보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 생각하며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자신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영락없는 철부지 아이의 모습을 보인다.

명자(女)

50대 후반. 윤슬 외할머니. 농업인. 남편과 윤슬, 세 식구로 지내다 얼마 전 남편이 사별하며 홀로 윤슬을 키우고 있다. 정부에서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엔 부족해 발일을 나간다. 윤슬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용남(男)

40대 후반. 방송국 PD. 수년간 전국구 촬영을 다니며 사람 사는데, 다룰 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직업 특성상 초면에 질문을 해야 하는 자신의 행동이 무례하지 않길 바라며 먼저 가까운 관계가 되려 한다.

준환(男)

20대 후반. 카메라 맨.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서툴지만 열심히 하려 한다. 전국을 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보는 것이 신기하고 행복할 뿐이다.

✓ 전체줄거리

어느 때와 같이 컴퓨터실과 친구 집을 가는 윤슬,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없다.

집으로 돌아온 윤슬은 마당에서 낯선 차와 남자를 마주한다.

마당에 자리하고 앉은 용남과 준환을 피하는 윤슬.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고 혼자 있게 된 집을 정리하던 윤슬은 준환의 가방에 관심을 갖는다.

조심스레 연 가방 안엔 카메라가 있다. 호기심에 만져보던 윤슬은 집으로 돌아온 준환을 마주하는데...